



구강보건의 날 기념 건치인 선발대회 오후 2시 광주시민회관



〈1일〉
 ▲제 61회 구강보건의 날 기
 념 건치인 선발대회 = 오후 2시
 광주시민회관. 1차 선발된 초·중·고등학생 및 노
 인들을 대상으로 30명의 치과의사가 치아상태·구
 강·생·영양·건강 상태·외모 등을 심사.
 <2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 = 오전 7시 광
 주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천세복(한국평생학
 습협회장)씨가 강사로 나서 '풍요로운 삶을 위
 하여'를 주제로 강연.

▲한국레이저기공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 오전 10시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
 술연구소.

▲2006 학교도서관대회 = 2일 오후 1시30분, 3
 일 오전 9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제 3전시장·
 컨벤션홀·2층 회의실. 광주동부교육청 최도순 장
 학사가 책 읽어주는 업무 활동을 통한 창의적 독

서활동 지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등 학교 도
 서관 우수사례 발표 및 정책방향 세미나.

▲제 488회 장성아카데미 = 오후 4시30분 장성
 군청 4층 대회의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보가
 '우리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
 로 강의.

▲진도개 학술세미나 = 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
 회관 소회의실.

▲2006 젊은 연극제 참가작
 락 뮤지컬 왕! 그의 이름은 = 3일
 까지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호남대 쌍촌캠퍼스 소극장.

▲목요 열린국악한마당 송화자 교수 초청 가야
 금 연주회 = 1일(목) 오후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 = 4일까지 오후 4

시, 7시 공동예술극장.

▲제 15회 광주무용제 = 2일(금) 오후 7시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

▲제 9회 무등차문화대전 = 2
 일~6일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
 관 기획전시실 및 앞마당.

▲꿈, 너에게 말을 걸다 10인전 = 21일까지 각화
 문화의 집 문화관람실.

▲광주 현대미술 특별기획 초대전 = 14일까지
 문화갤러리.

▲무등골 예술시장 프리마켓 전 '푸른6월' = 13
 일까지 일곡갤러리.

▲5·18 관련 그림 및 사진전 = 30일까지 5·18기
 념문화센터 전시장.

▲온나 제 2회 정기 전람회 = 7일까지 블라우스당.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진
 모임 '온나' 회원들의 작품 40여점 전시.

▲서양화가 신명자 개인전 = 7일까지 무등갤러
 리 별관. 풍경·정물·인물화 등 작품 49점 전시.

▲무등조형회전 = 8일까지 자마갤러리.

▲현대사진전 '앵글의 휴머니티' = 25일까지 시

립미술관 분관.

▲김점수 철예전 = 2월~8월까지 무등갤러리.

철공예를 위주로 한 다양한 작품 전시.

▲지산갤러리 기획프로젝트 '아이콘' 전 = 7일까
 지 지산갤러리. 김민정·안영찬·이정록씨 등 작가
 8명이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작품 전시.

▲우제길전 = 30일까지 우제길미술관.

▲'그림속 동물 읽기' 전 = 8월 20일까지 시립미
 술관,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강진 삼흥리 가마터 밭굴 유물전 = 30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강진 삼흥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 100여점 전시.



뉴스퀴즈

14. 독일 월드컵을 앞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난
 달 26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마지막 국내
 평가전에서 2-0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월드
 컵을 향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 보스니아-헤르체
 고비나는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G조 마지막 상대인
 이 팀을 가장한 모의고사로 치러졌습니다.

이 팀은 어디일까요?

① 스위스 ② 일본 ③ 사우디아라비아 ④ 브라질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
 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
 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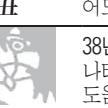
6월 1일(음 5월 6일 辛酉)



36년생 아는 도끼에 발등 칠흘 운로니 정신 빠져 차려야 할 것이다.
 48년생 부담스런 하루다. 60년생 과욕하면 질망이 생기고 72년생
 희망찬 하루가 된다. 84년생 애인이 생기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9, 36



37년생 재복과 여복이 자례하지만 중점을 지키라. 49년생 내조자,
 協助處를 만나는 형상이다. 61년생 육심을 버리면 들키는 73년생
 어여쁜 새로운 일에도 끌어들지 마라. 85년생 주변에서 합당하게 꾀
 어도 말려들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7,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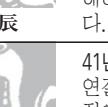
38년생 호랑이에게 물린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50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지만 화해하면 내 사람이 된다. 62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니 큰
 도움은 뜻찮다. 74년생 미운사람이 아첨하며 내편으로 들어온다.
 행운의 숫자 : 21, 25



39년생 주변이 도와서 가정이 풍족으로 바뀐다. 51년생 미우미가 좋을
 수 있다. 63년생 메사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나하고 절대변통하면
 서 무리하지 마라. 75년생 가네 병고 송사 시비 극히 소집해야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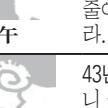
40년생 財破 직과 官破를 불러오니 이는 갈도 물어가라. 52년생 희
 망이 문전에 있고 의와의 협조자가 나타난다. 64년생 모든 일이 순
 해하며 행운을 얻을 것이다. 76년생 일마다 빠져하고 범사가 물리하
 다.
 행운의 숫자 : 17, 29



41년생 지난 일이 괴롭지만 좋은 일로 연결된다. 53년생 좋은 듯한
 연결이 불랑스럽게 나타난다. 65년생異性間에서 흥사만 남고 부부설
 전이 예상된다. 77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간다.
 행운의 숫자 : 03, 45



42년생 신사를 모색해서 오후부터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다. 54년생
 대개는 大盈하니 이심 없이 축구하라. 66년생 내심을 기하고 육심을
 줄여야 할 판이다. 78년생 친구의 도움이 절실히 온정을 끌어온다.
 행운의 숫자 : 05, 26



43년생 아내의 건강에 유념하라. 55년생 사기에 말려들 우려가 있으
 면 주의해야 할 것이다. 67년생 친지가 방해하지 않으면 한 걸할 수다.
 79년생 자발전을 기할 수 있는 진로를 발견한 형상이나 길로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01, 35



44년생 오후부터는 제 페이스를 찾는다. 56년생 금련 거래에는 더한
 신중이 필요하다. 68년생 이웃사람만 잘 다스리면 막사가 흥행한다.
 80년생 재물로 일하고 감수해야하고 더욱 심하면 분쟁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18, 32



45년생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놀랄 일이 다발한다. 57년생 자기노
 선을 찾았으나 급진하면 불편하다. 69년생 주변과 유대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81년생 금전거래에 시비가 나타날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4, 42



46년생 확장하면 百戰百敗하니 내심을 기하면 이득이 있을 수 있다. 58
 년생 신사참여는 절대로 불가할 수다. 70년생 음양이 교제되니 신중
 을 잊지 마라. 82년생 신용도 높아지니 신사에 적극 참여해도 무
 리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6, 28



47년생 타인과 구설수는 본인의 잘못이다. 59년생 錢財적인 길수 표
 현된 것은 아니지만 희망찬 진정이 가속된다. 71년생 일희일비하
 나 결혼은 안정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83년생 잔고 끝에 약수난다. 결
 단하라.
 행운의 숫자 : 02, 43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② 건강의 수호천사 '웃음'

인간세상에는 남녀간의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면 그밖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한다.
 인간사회 건강은 에로스적인 사랑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본다.
 한 사회의 건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구성
 되는 3대 필수영양소를 섭취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자!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사회에 전선을 타고 흐르는 전기처럼
 흐른다고 상상해보라.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조금은 따뜻해진다. 어
 려운 이웃을 돋掴ida며 정부·사회단체·기업·개인 등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량이 요즘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런 활동
 들은 정말로 소중하고 신성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남을 돋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구호
 나 모금활동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위한 돈 만들고 할 수 있는 기부행위는 뭘까.
 바로 사람들을 대할 때, 웃는 낯으로 대해보자는 것이다. 웃음짓
 거나 미소짓는 사람들을 보면, 금세 마음이 즐거워지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웃게 되듯 웃음에는 즐거운 전염성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의 사위가 된 김모(27·K은행 근무)씨는 자기 고등
 학교 동기동창생의 누나(29·A항공사 근무)를 사랑했다.
 친구 누나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친한 친구들에게도 비밀로

했다.

당시 김씨가 여자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부모들은 좋은 말로 태
 르다가 금기야 성을 높여가며 화를 냈고, 김씨는 결국 그 날 쫓겨
 나다시피 집을 나왔다고 한다. 그 뒤로 계속 찾아갔지만 번번이 문
 전박대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기를 3개월. 결국 딸 부모들은 김씨와의 결혼을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남다르다. 여자친구 부모들이 아무리 공격적인 말을 해대고,
 심지어 김씨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해대도 김씨는 얼굴 한 번 굽어지지 않고 웃는 낯빛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한 김씨의 태도에서 서서히 마음을 열어 결국 혼인을 허락한
 것이다.

웃음의 힘이란 뜯구름잡는 얘기는 아니다. 손에 '물컹'하고 잡히는
 살아 있는 물고기 같은 것이다.

결국 웃음은 삶 속에서 실제적인 효용을 발휘하는 구체적이고 실
 용적인 그 무엇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컨설턴트 엄앵란 (1588-6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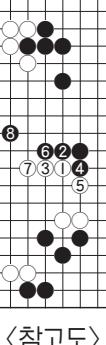
www.daksclub.com

<닥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



'기합'의 한 수

2회전 제 4보(48~67)
 白 김 영 수(5단) 黑 박 정 규(5단)
 <호남교사회>



생활의 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오하이오 니혼고

<658>

조금 흥미가 있어서

A:何(なん)